

순천, 헬스장서 하루 14명 확진... 코로나19 확산 '비상'

접촉자 규모조차 파악 안 돼 도시 전체 대규모 감염 불안
광주, 확진세 주춤... 무증상 확진 많아 안심 단계 아니다

25일 순천의 한 헬스장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14명이 쏟아지면서 도시 전체가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기사 2·3·4·5면〉

하루 사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가 더딘 데다, 14명의 확진자 중에는 어린이집 조리사, 학원 및 학교 안내인 등 다중시설 종사자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확진자 급증에 대한 불안감도 번지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고 "순천에서만 이날 하루 코로나 19 확진자가 14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발생한 확진자들은 모두 순천 정암대학교에 자리 잡은 정암 화이트니스&스파 이용자이며, 7명은 발열, 인후통, 가래, 기침,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났고 나머지 7명은 무증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나온 14명의 추가 확진자들은 전남 75번 확진자가 다녀온 순천 정암 화이트니스&스파 이용객들로, 특정 장소에서의 두 자릿수 이상 집단 확진자 발생은 광주·전남에서 처음이다. 이날 순천에서 해외 유입 사례 1명도 발생하면서 순천 누적 확

진자는 34명, 전남은 97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들은 전남 방역당국이 전남 75번(40대 여성) 역학조사 과정에서 감염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 헬스장발(發)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전남 75번 확진자는 지난 20일까지 오전과 오후, 하루 평균 2차례 헬스장을 찾아 운동했으며, 이 과정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전남 75번 여성은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전남 50번(70대 여성) 확진자와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19 전남 재확산에 영향을 준 전남 50번은 서울에 소재한 방문판매업체(일명 다단계)인 '무한그룹'에 지난 13일 다녀온 뒤인 지난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무한그룹을 진원지로 하는 코로나 19 확진자도 전국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다.

전남 75번과 운동 시간이 겹친 헬스장 이용객 292명 가운데 230명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며, 나머지 6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75번 확진자에 대한 접촉자 조

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데다, 헬스장에서 이날 쏟아진 14명의 확진자 접촉자 파악과 검사가 일시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어린이집 조리사, 학교 및 학원 등 다중시설 관계자가 포함된 점도 감염 확산의 불씨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반면, 광주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다. 지난 22일 1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이후 23일 1명, 24일 4명, 25일 1명 등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절대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경고다. 일단 누적 확진자 285명 중 증상이 없는 무증상자가 절반이 넘는 148명에 이르는 점이다. 무증상 확진자는 특히 2차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 6월 27일 이후 130명이 발생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확진자도 14명이다.

박항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무책임한 산 사람의 행위만으로 코로나19 방역망은 충분히 위태로울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대다수 일반 시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마스크쓰기와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태풍 북상... 피항 어선들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25일 제주 남서쪽 해상에서 전남 서해안으로 북상함에 따라 인근해 어선들이 목포 북항에 피항해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링링' 보다 센 역대급 태풍 '바비' 낮부터 강한 비바람

최대풍속 초속 60m·비 300mm

북상중인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은 26일 낮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된다.

기상청이 전망한 태풍 바비의 최대순간풍속은 초속 40~60m로, 2019년 태풍 '링링'(초속 54.4m)과 2012년 태풍 '블라멘'(초속 51.8m)에 버금가는 강한 태풍으로 예측된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강수량으로 지반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많은 비가 또 쏟아질 경우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는 태풍 대비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26일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제주도 서쪽 해상과 서해를 따라 북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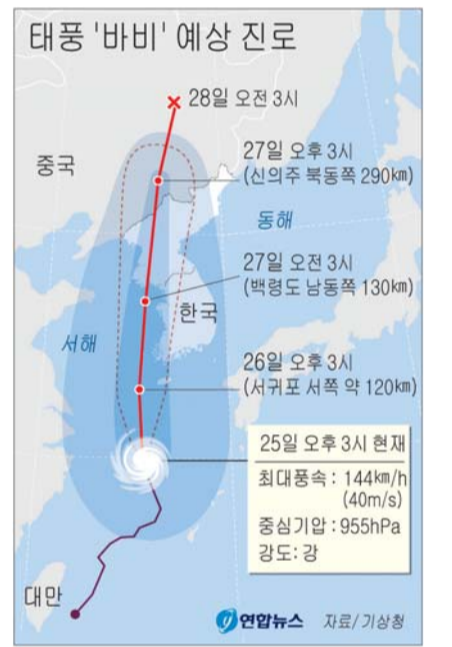
북한 황해도 부근 연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태풍이 서해안에서 50~100km 떨어진 서해상을 따라 북상하는 만큼 한반도는 태풍의 오른쪽인 위험반원에 위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은 26일 새벽부터 태풍의 강풍반경 내에 들면서 초속 10~20k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며, 특히 전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순간풍속 초속 40~60m, 그 밖의 지역은 최대순간풍속 초속 35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됐다.

태풍과 함께 남해안에 위치한 비구름이 북상하면서 26일 오전부터 시작된 비는 전지역으로 확대돼 2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27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100~300mm로 전망됐다.

남해서부전해상과 서해남부만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초속 14~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물결도 3~7m



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예측됐다.

전남 동부지역에도 최대순간풍속 초속 3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최근 폭우로 수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다시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확진자 급증에 지역간 병상 나눔도 '스톱'

치료병상 확보에 비상

광주시·전남도 공조 논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때 대구와 '병상나눔'을 이어갔던 광주시와 전남도도 치료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당분간 대구 등 타 지역의 병상 나눔도 쉽지 않게 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머리를 맞대고 호남권역 치료병상 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총 167병상 중 56병상을 사용 중인 광주시는 전남도와 치료병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광주는 전남대병원 7병상, 조선대병원 10병상, 빛고을 전남대병원 89병상 등 106병상이 있다. 광주시는 또 전북대병원 10병상, 원광대병원 1병상, 순천의료원 20병상, 강진의료원 20병상, 군산의료원 10병상 등 타 지역 의료기관의 61병상도 추가로 확보한 상태다.

광주시는 중증환자가 증가하면 타 지역 병상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전남과 전북 등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여서 타지역 병상을 사용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병상 부족 현상을 대비해 다양한 대비책을 강구중에 있다"며

서 "특히 인근 전남도, 전북도 등과 병상공조 방안도 수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감염병전담병원 2곳에서 130병상을 운영 중이다. 순천의료원 89병상, 강진의료원 41병상이다.

이날 현재 순천의료원에 환자 42명(전남 40명, 광주 2명), 강진의료원에 30명(전남 14명, 광주 16명)이 입원 중이어서, 순천의료원 47병상, 강진의료원 11병상 등 모두 58개 병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26일까지 병상 조정 등을 통해 37개 병상을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순천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급증으로 현재 나누어 쓰고 있는 병상 외에 추가로 광주시와 병상 나눔을 이어갈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사랑의 땅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라남도 JeollaNamdo

밥맛 · 품질 · 생산분야 종합평가에서 2020년 최고의 쌀로 선정된

전남 10대 브랜드 쌀

맛있는 전남쌀을 남도장터 www.jnmall.kr 에서 구입하세요

- 담양 대소맑은 담양쌀
- 영광 세계절이 사는집
- 무안 황토랑쌀
-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 영암 달마지쌀골드
- 강진 프리미엄호평
- 함평 함평나비쌀
- 해남 한눈에반한쌀
- 곡성 백세미
- 화순 자연속애순미